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12월 07일 (월요일)

지역연합신문 6면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일원화 시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제191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구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권한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방안이 실현될 전망이다.

강북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교통관련 부서로 빠른 시일 내에 이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각기 1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균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규정과 환경의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살고 배려하는 따뜻한 강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강북신문 5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권한 일원화 이끌

이용균 의원, 교통단속 공무원에 이관하여 효율적인 단속 가능하게 해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제191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권한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지난 11월 구청으로부터 받았다.

이용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의 부족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장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장애인 관련부서 직원에서 교통단속 공무원에게 이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장애인의 주차 권리를 확보하도록 할 것을 구청에 요청했다.

이에 구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교통관련 부서로 빠른 시일 내에 이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이용균 의원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균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규정과 환경의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살고 배려하는 따뜻한 강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북부, 한전병원 협업 청년 일자리 150명 창출go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홍섭)과 한전의료재단 한전병원(병원장 박현수)은 지난 9월22일 지역청년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공감하고 청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양 기관은 긴밀한 취업지원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심도 있게 협력하여 청년일자리 150명 창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청년일자리 150명은 '16년에 채용할 간호사 인력을 모집공고 한 것으로 12월4일까지 지원자를 접수 받아, 지역 구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북부지청에서는 동 병원의 모집공고를 워크넷(www.work.go.kr)에 등록하고, 관내 대학교 등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 구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서울포스트 4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권한 일원화 이끌어

이용균 위원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제191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권한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지난 11월 구청으로부터 받았다.

이용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의 부족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장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장애인 관련부서 직원에서 교통단속 공무원에게 이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장애인의 주차 권리를 확보하도록 할 것을 구청에 요청하였다.

이에 구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교통관련 부서로 빠른 시일 내에 이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균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규정과 환경의 개선을 통해 더불어 살고 배려하는 따뜻한 강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